

첨단 연구시설·장비 고도화 사례 공유

핵심연구센터 호남·충청·제주협의회 전북대서 개최 지역 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 활성화 모색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핵심연구지원센터 호남·충남·제주권 협의회가 15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핵심연구지원센터는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 요소인 첨단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가 전

북대 등 전국 68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박정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김선재 핵심연구지원센터장 등이 각 대학의 우수센터 소개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센터들은 공동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각 센터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 등을 폭넓게 모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들이 참여해 지역 협의회별 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센터 역량 강화와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대 Zoonosis 핵심연구지원센터 어성국 센터장과 단국대 바이오의료공학 핵심연구지원센터 한규동 센터장 등이 각 대학의 우수센터 소개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센터들은 공동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각 센터의 조성

양오봉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첨단 장비의 공동 활용 추진은 지·산·학·연 상생 협업 모델 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핵심연구지원센터 운영의 모범 사례 발굴은 물론,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대학 간 상생발전의 토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학교가 권역별 핵심연구지원센터와 대학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자율전공학부 전문가 특강... 진로 탐색 도모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학부장 박규연)는 15일과 29일 두차례 비전있는 진로 탐색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사우드대학교 고원석 교수, 나이피어 탐안보과대학 김경곤 교수가 초청돼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미래사회와 사이버 범죄'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군산대에 따르면 전문가 특강은 학생들이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청조내 시청각실 및 회의실에서 학생수학동아리 학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학생수학동아리 학술제의 모습이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먼저 15일 오후 1부터 진행된 1차 특강은 킹사우드대학교 고원석 교수가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29일 오후 1시에는 나이피어탐안보과대학 김경곤 교수의 '미래 사회와 사이버 범죄'를 주제로 진행된 예정이다.

박규연 학부장은 "자율전공학부 재학생들이 전문가의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통해 비전을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통해 사회변화에 통찰력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실시간 webex로 진행된다. 자율전공학부 재학생뿐만 아니라 군산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관심있는 사람은 webex 링크(https://kunsan.webex.com/meet/pr101519)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메타버스 활동 진로탐색 집단상담 진행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집단상담은 10월 31일, 11월 6일, 11월 13일, 11월 14일 등 총 4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메타버스 공간은 재학생들이 현실의 상담실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8개의 방으로 이뤄진 상담실 공간으로 구현됐다.

각 방에는 방음이 가능해 그룹 활동을 하거나 동시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상담실에서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나 투포탑 등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다양한 상담도구(감정카드, 동물표지, 그리기도구 등)를 사용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메타버스에서 진로탐색 집단상담을 참여한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상담을 진행한 점이 신기했고, 말로만 듣던 메타버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며 "메타버스는 매체를 통해 친하지 않은 동기들과도 긴장을 풀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주제로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들여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수학동아리 37개팀 1년간의 활동 결과 발표

전북 학생수학동아리 학술제, 18일 도교육청 청조내에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8일 청조내 시청각실 및 회의실에서 학생수학동아리 학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제는 1년간의 동아리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는 올해 학생수학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팀들이 한데 모여 활동 내용과 탐구 주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주제탐구·통계 등을 주제로 한 학생동아리 30팀과, 활동중심의 학생동아리 70팀 등 총 100팀을 지원해왔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초·중·고등학교로 전주대성초 조현민 교사가 '수와 연산' 보드게임을 통한 수학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수원 창현고 오광석 교사가 '수학 하수에서 실수 되기'를 주제로 수학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 사례로는 △남관초 수학교육실용수학으로 대등단결 △전주 솔내고 데이터수시대 △순창고 수학나눔 △성일고 수학사랑 등이 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수학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하며, 수학적 사고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학 관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모두의 인권, 서로 존중하는 학교'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주간' 기념 공모... 24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교육인권주간' 기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북교육인권주간은 모든 인권의 권리를 존중하는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해 12월 4~8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구성원이 다양

한 작품 활동에 참여해 전라북도 교육인권 주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우호적인 작품 제작으로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인권,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주제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호 △학생 인권 및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있는 내용 △상호 존중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우리 주변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면 된다.

공모 분야는 △슬로건(학생, 교직원, 학부모) △UCC(학생, 교직원) △랩(학생, 교직원) △그림·일러스트

레이션(학생) △글·시(학생) 등 5개 분야다.

오는 24일까지 전북교육인권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작품성·전달력·활용성 등을 심사해 오는 12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인권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37-0354)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주간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주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도교육청, 18일 왕의지밀서 '전북 창업캠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8일 왕의지밀에서 도내 창업체험 교육 중점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업체험교육 중점학교 학생 및 운영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비즈니스 모델 집중 교육을 통해 고등학생 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호 소통을 장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호남제주권역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인 전남대와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참여해 체계적인 창업실습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확립 및 창업마인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실제 창업자가 강사로 참여해 내만의 모의 기업을 구축해 보는 Dream-company building 프로그램, 확장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는 '비즈니스 모델링 구축 프로그램' 등 실천과 같은 창업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현재의 진로교육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체험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창업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방대한 공학수학 핵심 내용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풀다

전북대 마인속 명예교수, '공학수학 에센스' 출간

전북대학교 마인속 명예교수(수학)가 공학수학 교재인 '공학수학 에센스'를 출간했다고 15일 전했다.



전북대 마인속 명예교수

이에 따르면 모두 704쪽 분량의 이 책은 방대한 공학수학을 삼미분방정식, 선형대수, 푸리에 해석, 편미분방정식, 복소해석 분야로 나눠 각 장에서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핵심을 간결하게 제시했다.

특히, 풍부한 예제와 예제의 풀이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탄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책에 사용된 표현 역시 수학자의 전문성 있는 용어보다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학수학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미분과 적분을 부록에 실어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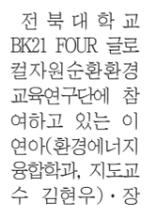
한편, 이 책의 저자인 마인속 명예교수는 전북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전남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어번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1982년부터 전북대 수학과에 재직했다. 주요 연

구 분야는 대수학이다.

마인속 명예교수는 "공학수학은 다양한 전공에서 필요한 수학의 모두 모은 것은 것으로, 공학계열 학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학"이라며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이 공학수학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나아가 각자의 전공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환경공학 연구 성과 '우수'

전북대 이연아·장세은 대학원생, 학술대회 논문상 각각 수상



이연아

장세은

전북대학교 BK21 FOUR 글로벌컬지원순환환경교육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연아(환경에너지융합학과, 지도교수 김현우)·장세은 석사과정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 지도교수 백기태)이 우수한 연구 성과로 각각 학술대회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연아 석사과정생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총유기탄소 예측기반 저온플라즈마공정의 스마트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하폐수처리장의 스마트한 제어 방법

을 연구한 것이다.

또 장세은 석사과정생은 가족분뇨와 가족분뇨 유래 바이오차의 탄소 안정성 및 탄소격리 효과 연구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장 석사과정생은 바이오차의 생성과 공화를 고려해 탄소격리효과를 정량적으로 예측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연아 석사과정생은 "BK21 FOUR 사업을 통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교수장학회는 15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재학생 6명에게 제자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석대 교수장학회, 제자사랑 장학금 전달

재학생 6명 대상

우석대학교 교수장학회는 15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재학생 6명에게 제자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박진희(간호학과) 교수장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천현 총장은 교수장학회의 뜻을 담아 전강우(심리학과 4년) 학생 외 3

명에게 장학증서와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천현 총장은 "제자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스승의 뜻을 깊이 새겨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81년부터 장학금 조성사업을 시작한 우석대학교 교수장학회는 전체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1명에게 1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